

카타르 경제, 정부의 개방정책과 에너지 산업
호조로 2012년까지 연평균 12% 성장 전망

1. 최근 경제 현황

□ 석유 · 가스 산업이 고도 성장 견인

- 카타르는 인구 80만의 소국이지만, 1인당 GNP가 67,000달러로 룩셈부르크, 노르웨이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,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4%, 원유의 1.3%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임.
-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원유 수출 증가('07년 기준 226억 달러), 석유 · 가스 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, 건설 및 금융 등 비석유부문의 호조 등에 힘입어 카타르 경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1.5%의 고도성장을 유지해 왔음.
- 과거 5년간 석유 · 천연가스 관련 산업 개발에 약 153억 달러를 투자한 결과, 원유 생산은 연평균 5.6%, LNG 생산은 연평균 18.7% 이상 증가

□ 카타르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잇따라

- IMF는 '07. 11월 발간된 '카타르 Country Report'에서 카타르의 경제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향후 천연가스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2012년까지 연평균 12%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-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&P 또한 낙관적인 경제전망, 성공적인 개혁정책 추진, 안정적인 재정운용 등을 근거로, '07년 3월 카타르의 국가신용

등급을 'A+'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인 'AA-'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.

- 한편, 2007년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, WEF)은 '아랍 국가 경쟁력 보고서'에서 카타르의 높은 교육수준과 산업다각화 노력을 강조하며 아랍지역 13개국 중 카타르를 아랍에미리트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하였음.

<표 1> 카타르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

단위: Billion Riyals(US\$1 = 3.64 Riyal)

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GDP	115.5	154.6	191.9	239.6	301.5	343.8	397.4	442.1	488.8
경제성장률(%)	17.7	9.2	10.3	14.2	14.1	13.1	14.5	10.1	9.5

자료: IMF Country Report

2. 카타르의 성장 요인

□ 에너지 수요 증가세 지속

- 국제에너지기구(International Energy Agency, IEA)에 따르면,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소비량 급증, 아시아, 중남미 국가의 경제성장세 지속 등을 근거로 향후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1.8%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
- IEA는 개발도상국이 전체 에너지 수요의 74%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(중국과 인도 45%, OECD 회원국 20%, 체제 전환국 6% 등으로 구성)

- 국제 유가와 관련, IEA는 2008년 배럴 당 78달러, 2009년 72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, 2010년대 중반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인 후 2030년 다시 상승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한편, 카타르 경제의 성장 동력인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가격 상승추세에 연동될 것으로 전망됨.

- 카타르 경제에서 석유·가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GDP의

60% 이상이며,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력 증대를 위해 카타르 정부는 향후 5년간 82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.

- 가스전 개발의 주요 목표는 ① 외국 주요 석유 회사들과 기술협력을 통해 2010년까지 현재 2천5백만톤의 LNG 생산량을 3배로 확대, ②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으로 부상 중인 GTL(Gas to Liquid) 개발, ③ 기타 천연 가스의 다각적 개발 및 사용을 위해 가스 추출 부산물을 이용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 시설 확충 등 3가지로 요약됨.
- 이 경우 수출 대상지역을 기존 아시아(중국, 한국, 일본, 인도) 중심에서 유럽·미국 등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세계 LNG 수요의 30%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<표 2> 세계 에너지 소비 전망

단위: Mtoe, %

구분	1980	2000	2005	2015	2030	'05-'30*
석유	3,106	3,647	4,000	4,720	5,585	1.3%
석탄	1,786	2,292	2,892	3,988	4,994	2.2%
가스	1,237	2,089	2,354	3,044	3,948	2.1%
원자력	186	675	721	804	854	0.7%
수력	147	226	251	327	416	2.0%
바이오/폐기물	753	1,041	1,149	1,334	1,615	1.4%
기타 신재생 에너지	12	53	61	145	308	6.7%
계	7,228	10,023	11,429	14,361	17,721	1.8%

자료: IEA, World Energy Outlook 2007

Mtoe = Million Tons of Oil Equivalent

* 연평균 성장률

□ 카타르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

- 셰이크 하마드 국왕은 산업다각화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'Education City'라 불리는 1,012만m² 규모의 세계적인 교육도시 설립과 공항 증축

등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.

- 지난 2003년 카타르재단에 의해 설립된 교육도시 'Education City'는 국가 번영을 보장할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5개 명문대학¹⁾ 분교 설립과 함께 세계 일류 인재들을 유치하여 중동의 '엘리트 교육 허브'로 급부상 중임.
- 또한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단지(Qatar Science & Technology Park, QSTP)²⁾와 국제금융센터(Qatar Financial Centre, QFC), 투자자유지대(Qatar Free Investment Zone)를 설립, 기존의 석유·가스 등 천연자원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과학·금융·의료·관광 등으로 산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

<표 3> 카타르의 국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

분야	투자항목	투자액	연도
에너지	북부가스전 개발	600	2010
	LNG 생산 확대	150	2012
인프라	재활훈련비용	9	2010
	교육도시	10	2008
	인프라스트럭처 및 빌딩 건축	56	2009
	신공항	55	2009, 2015
	수전력 건설	30	2009
항공기 구매		150	2007, 2010
LNG 운반선		150	2010
대중교통, 상업단지, 관광		170	2012

자료: 매일경제, 2007.04.10

1) 코넬대 의과대학, 카네기멜론대 경영 및 컴퓨터공학대학,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, 텍사스 A&M대 공과대학,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응용미술대학으로 구성

2) 과학기술단지는 대기업 위주의 혁신기술이전센터와 중·소규모 창업기업 위주의 이머징테크놀로지센터로 구성, 입주예정인 Exxon Mobil, Shell, GE, Rolls-Royce, EADS(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)사가 향후 5년간 R&D에 투자할 예산만 2억2500만 달러임. 2008년 말까지 12개, 2011년까지 50여개 기업의 연구기관이 입주할 전망

□ 자본시장 개방, 안정된 정치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 유지

- 카타르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 10월 투자법을 개정, 외국 기업의 지분 소유 비중을 교육·관광·보건 분야는 100%,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 49%까지 허용하였음.
- 과거에는 카타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Q-Tel, Al Salam International Investment 등 2개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했었지만, 2005년 4월부터는 모든 기업에 대해 지분의 최대 25%까지 주식 취득이 가능해져,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음.
- 앞으로 카타르 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5%에서 12%로 낮출 예정이며, 현재 세금이 면제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하는 등 향후 외국·국내 기업 간 동일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.
- 한편,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하마드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도가 높고,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미국, 유럽 등 친 서방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.

3. 향후 전망

□ 경제성장세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 개혁정책 필요

- IMF, EIU 등 경제전문기관들은, 우호적인 대외여건과 상기 성장 요인에 따라 향후 카타르 경제가 연평균 12%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 정책에 따라 많은 개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.
- 그러나 카타르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산업다각화, 인플레이 방지를 위한 긴축통화정책, 신규 세원 발굴 등의 다양한 개혁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- 카타르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전체 GDP의 60%, 수출의 90%('06년 기준)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, 향후 유가 하락의 가능성, 걸프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, 산업 다각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.
- 또한, 과거 5년 평균 11.5%에 달하는 가파른 경제 성장과 부동산 및 식음료 가격 상승으로 최근 물가상승률이 13%에 달하고 있어,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으며,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 하락이 전망되고 있어,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, 세제 개혁을 통한 세원 발굴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전문연구원 김예리(☎02-3779-6654)

E-mail : yeliekim@koreaexim.go.kr